



2020년 1월 12일(제964호) 주님 세례 축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하나의 세례”

세례는 하나입니다.(에페 4,5) 세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유아가 받는 세례와 성인이 받는 세례는 다르지 않습니다. 죄가 적은 사람과 죄가 많은 사람이 받는 세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례는 하나입니다.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몸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세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습니다.

세례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받은 바로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통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아들, 마음에 드는 딸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사랑의 사건이고, 너무나도 강력한 기쁨의 순간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세례를 기억합시다.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저 지나간 일상이 되어 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세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창조주의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한, 엄청난 존재론적 변화를 가졌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선물 같은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토록 큰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은총의 지위에 올랐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완벽한 우리의 편이시기에 우리는 또한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기 내어 살아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세례를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성주형(간사) 신부  
소장(17사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이사 42,1-4.6-7

**회 록 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제 2 독 시** 사도 10,34-38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 음** 마태 3,13-17

**영 성 제 송**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 교구 청년 대회 인니



◆ 교구에서 청년들과 군 장병들을 위한 제주도 성지순례를 마련했습니다. 특유의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 순례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일정 : 2020년 2월 17일(월) ~ 21일(금)

17일(월)	18일(화)	19일(수)	20일(목)	21일(금)
예수님의 부재	다가오시는 예수님	방향을 제시하시는 예수님	사랑을 찾아서	결단, 그리고 파견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요한 21,4)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요한 21,5)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요한 21,6)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21,15)	“나를 따르라” (요한 21,19)

- 참가비 : 15만원(항공료 불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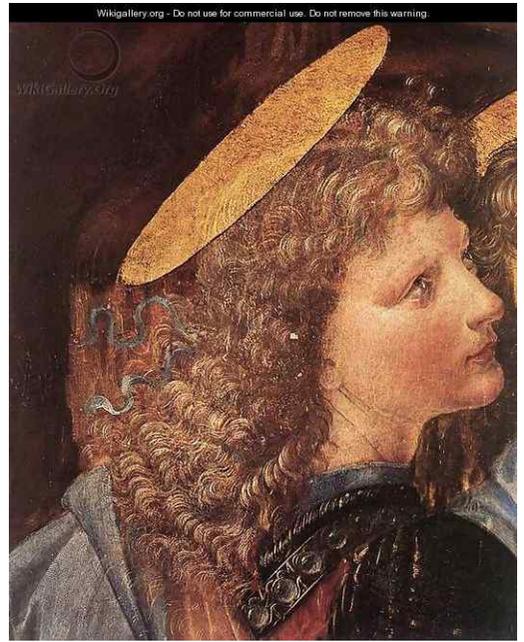
- 문의 : 군중교구 교육국(02-749-1921, 내선 4번)  
카카오톡 : 천주교 군중교구청 교육국(ID: miledu)

상화이야기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베로키오, 1472~1475년 제작  
나무 위 유화, 177x151cm / 피렌체 우피치, 이탈리아



세부도

베로키오는 본인의 작업보다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이었다는 점 때문에 유명해지게 되었고, 이 작품도 다빈치가 천사 중의 하나를 그려 넣었다는 이유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발목까지 오는 물결이나,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 그리고 인물들의 얼굴과 자세에서 알 수 없는 위엄과 힘이 느껴지는 훌륭한 작품이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얼굴과 표정에서 읽을 수 있는 진지함과 겸손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이 다가온다.

맨 왼쪽에 있는 천사의 얼굴을 다빈치가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선이 굵고 굳은 표정의 타 인물들과 달리 선이 부드럽고, 다빈치 특유의 모호한 미소가 돋보인다.

혹자는 스승이었던 베로키오가 다빈치의 그림을 보고 너무나 감동하고, 자신의 재능의 한계를 인정한 나머지 붓을 쥐었다고도 전하고 있다.

김은혜(벨리시넷)

교 구 소 식

군중주보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주님 세례 복일: 진군 천민상 신부

◆ 교구장 동정

- 필승(30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1월 12일(주일)

- 가톨릭 의료협회 신년하례식  
때·곳: 1월 16일(목) 15:00, 군중교구청

◆ 제13회 청소년 진리봉사지 겨울 캠프

때·곳: 1월 13일(월)~17일(금), 곤지암 리조트

◆ 2020년 제62차 국제군인 상지순례대회

- 일시: 2020년 5월 7일(목)~19일(화)
- 장소: 폴란드, 체코, 프랑스
- 대상: 군중신부, 군인신자, 예비역, 군가족
- 참가비: 370만원(총 410만원, 교구지원 40만원)
- 신청마감: 2020년 2월 3일(월)
- 자세한 사항은 교구 공문(천군교 1920 - 31) 참조
- 문의: 군중교구 사목국(02-749-1921, 내선 2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라도를 따라” -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